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1월 17일 수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21면	강원도의정회 정기총회 ... 박주선 회장 연임	1
강원도민일보	22면	박주선 강원특자도의정회장 유임 "가교 역할 최선"	1
강원도민일보	22면	"2024 강원대회 성공 개최 도행정동우회 힘 모으자"	2
江原日報	21면	퇴직공무원들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 함께한다	2
江原日報	03면	“지역주민 의견 반영” vs “도민 생명·재산 보호”	3
江原日報	13면	전국이·통장연합중앙회 김홍길 고성지회장 취임	3
강원도민일보	16면	[동정] 강정호(속초) 도의원	3
강원도민일보	03면	도, 대회 총점검 완료 '안전·위생·한파' 폐막까지 집중관리	4
江原日報	05면	올림픽 개막 코앞 '식중독 막아라' 비상	4
江原日報	01면	윈터 테마파크 변신한 경기장서 'K-컬처' 즐긴다	5
江原日報	02면	"범죄 테러 위협 완벽 차단" 강원경찰 특공대 투입	5
강원도민일보	04면	도청 신청사 건립 계획 완료... 2026년 착공 추진	6
강원도민일보	04면	민족사관고 내년부터 강원도 학생 20% 의무 선발	6
江原日報	04면	새 학기부터 학폭 전담조사관 생긴다	7
강원도민일보	10면	도교육청-원주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협력	7
江原日報	10면	"국제스케이트장 춘천이 적지" 홍보 고삐잡는다	8
강원도민일보	10면	원주시 올해 '6개사 1000억원' 투자 유치 총력	8
강원도민일보	12면	동해 북평산단, 저탄소 그린산단 재탄생 속도	9
강원도민일보	09면	평생학습 검색·신청·결제까지 '배워봄'에서	9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글로벌본부 2년차 기대 크다	10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무료티켓 '노쇼' 선의 피해 없어야	11
江原日報	19면	[사설] 얼어붙은 사랑의 온도탑, 온기 되살려야 할 때	12
江原日報	19면	[사설] 극으로 치달는 남북관계, 안보에 흔들림 없어야	13

江原日報

2024년 01월 17일 (수)

인물 21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16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강원도의회 정기총회 ... 박주선 회장 연임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16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갖고 박주선 회장의 연임 안건을 의결했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김수용·송범호·김원기 부회장이 연임됐고 심영섭 신임 부회장이 함께 선임됐다. 이어 2023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고 2024년 주요사업계획 등을 의결했다. 강원자치도의회는 전·현직 도의원 242명으로 구성돼있다.

박주선 회장은 “지방 자치화

시대에 발맞춰 자치 역량을 높여 의정·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특히 회원간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정회의 운영비를 위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장, 도의회 사무총장, 도의회 제5·6대 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흥천군문화원장, 강원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현정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17일 (수)

인물 22면



전·현직 강원특별자치도의원 242명으로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16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도의회

박주선 강원특자치도의정회장 유임 “가교 역할 최선”

제14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회장에 박주선(사진) 13대 회장이 유임됐다.

강원도의회는 16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열고 박 회장을 14대 의정회장으로 유임하는 안을 의결했다.

임기는 오는 2026년 1월 19일까지 2년이다. 박 회장은 흥천농고를 졸업하고, 강원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흥천군 내무과장·기획실장, 자유총연맹



흥천군지부장,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장, 제5·6대 강원도 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흥천군문화원장, 강원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장을 맡고 있다.

박 회장은 “회원 간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의회는 전·현직 도의원 242명으로 구성돼있다. 이설화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17일 (수)

인물 22면



강원 행정동우회 정기총회가 16일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김진태 도지사, 허영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등 내빈과 회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유희태

“2024 강원대회 성공 개최 도행정동우회 힘 모으자”

정기총회·경기 관람 캠페인 진행

강원특별자치도행정동우회(회장 이우식)가 16일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붐업 확산에 나섰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김진태 지사와 허영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김길수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 시군행정동우회 회장단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행정동우회는 이날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임원개선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도·시군 행정동우회원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경기 관람 캠페인도 진행했다.

이우식 회장은 “강원사랑운동과 지역사회봉사활동 등 사회공익증진활동을 확대 추진해 공익법정단체로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여나가겠다. 2024 강원대회 성공 개최에 도행정동우회의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김덕형

江原日報

2024년 01월 17일 (수)

인물 21면

퇴직공무원들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 함께한다

도행정동우회 정기총회서 붐업 다짐
회원 경기관람하기 캠페인 등 진행

강원특별자치도행정동우회(회장:이우식)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함께 나선다.

강원자치도행정동우회는 16일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허영 국회의원,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와 김길수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육동한 춘천시장, 시·군 행정동우회 회장단과 회원 등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원들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붐업을 위해 ‘도·시·군 행정동우회원 경기 관람하기 캠페인’을 펼치기로 하는 등 붐업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또 지난해 열린 제6회 행정동우회원 예술작품전에 출품된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기원을 축원하는 기념회화(한시·서예·서각)’를 강원자치도에 기증하는 행사도 마련했다. 행정동우회원 예술작품전은 강원 관광문화자원을 홍보하고 인생 2막을 맞은 회



◇강원특별자치도행정동우회 2024년도 정기총회가 16일 도공무원교육원에서 이우식 회장, 김진태 지사, 허영 국회의원, 김길수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육동한 춘천시장, 김진선 전 지사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세희기자

원들의 삶의 활력소를 위해 2017년부터 열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 승인했으며 또 성길용 이사를 신임 부회장으로 심면섭, 이덕하, 이서

남 회원을 이사로 각각 선임했다.

이우식 회장은 “올해에는 도정 발전의 협력자이자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다지겠다”면서 “강원사랑운

동, 지역사회봉사 등의 사회공익 증진 활동을 확대 추진해 공익법정단체로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여나가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

2024년 01월 17일 (수)

종합 03면

江原日報

“지역주민 의견 반영” vs “도민 생명·재산 보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각 도당 공약 심혈 ... 정의당 “녹색·평화로 특별한 자치도”

4·10 총선을 84일 앞둔 상태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내 각 도당이 승리를 위한 공약을 가다듬으며 정책 개발에 나서고 있다. 대부분 초안은 이미 작성했고, 중앙당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국민의힘 도당은 앞서 지난해 4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먼저 일편도심(一片道心) 총선거획단을 발족,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왔다.

특히 지역 발전 숙원사업과 광역교통망 구축, 일자리, 복지 등 4개 분야에 집중해 공약을 발굴했다. 또 지난 8일 원주에서 열린 도당 신년인사회에서 공약 초안을 담은 활동보고서를 박정화 도당위원장에게 전달, 중앙당과 협의를 기다리고 있다.

김길수 총선거획단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의 목소리라고 본다”며 “중앙당의 공약과 지역에서

발굴한 내용을 혼합해 좋은 공약으로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총선거획단의 정책분과를 이끌고 있는 강원해파랑연구소는 지난해 2월 출범해 지역 순회 정책경청투어를 이어왔다. 이어 지난달 28일 중앙당 정책위에 15개의 강원 공약 초안을 전달했다. 강원해파랑연구소는 중앙당의 검토 의견을 기다리는 동시에 매주 분야별 간담회를 통해 민생 복지, 균형 발전, 강원특별자치도 등 분야별로 어떤 것이 공약화돼야 하는지 점검하고 있다.

이기원 강원해파랑연구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유능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내용을 담으려고 한다”고 했다.

정의당 도당도 총선을 앞두고 공약 초안을 만들어 다듬고 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가 녹색과 평화로 특별한 자치도가 되게 하기 위해 강원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현정기자

江原日報

2024년 01월 17일 (수)

지역 13면

전국이·통장연합중앙회

김홍길 고성지회장 취임

【고성】(사)전국이·통장연합중앙회 고성군지회장이 취임식이 16일 고성군청 대회의실에 열려 김홍길 회장(사진)이 취임하고 전영수 회장이 이임했다.



이날 행사는 함명준 군수, 김일용 군의장, 김용복 도의원, 장상훈 고성소방서장, 김창권 NH농협 고성군지부장, 고성지역 이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16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홍길 회장은 거진공고를 졸업하고 고성군이장연합회 수석부회장, 거진읍 이장협의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거진읍 반영회 감사, 거진읍 명태축제위원회 감사, 거진 10리 이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김천열기자

김홍길 회장은 거진공고를 졸업하고 고성군이장연합회 수석부회장, 거진읍 이장협의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거진읍 반영회 감사, 거진읍 명태축제위원회 감사, 거진 10리 이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김천열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17일 (수)

인물동정 16면

강정호(속초) 도의원은 17일 오후 2시 속초시청

호동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청호동 아바이나눔기금조성사업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17일 (수)

스포츠 03면

도, 대회 총점검 완료 '안전·위생·한파' 폐막까지 집중관리

2024강원 준비상황 최종보고회
선수촌 메디컬 클리닉 2곳 조성
주변 식음·숙박시설 점검 강화
경기장 난방쉼터·방한용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가 개막 이틀 앞으로 다가온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강원 2024) 총점검을 마쳤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6일 도청에서 김진태 도지사 주재로 '강원 2024대회 지원 준비상황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김 지사는 2024강원대회 개최 시·군(강릉시·평창군·정선군·횡성군)과 도청 각 실국에 안전과 위생 등 감염병 대응 지원에 집중해줄 것을 다시한번 주문했다. 특히, 도와 조직위는 최근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점검회의가 16일 도청 신관회의실에서 김진태 도지사와 도청 각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영

노로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나온 선수촌 식당,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숙박시설 조리장을 대상으로 방역 소독을 마쳤다. 또, 선수촌·대회 운영인력

식당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 15개소는 위생 점검을 받았다. 도는 2월 1일 대회 폐막까지, 경기장 주변 식음료·숙박 시설을 대상으로 개최 시·군과

합동점검을 강화한다.

올림픽 기간, 선수촌과 개최 시·군 숙박 시설에 머무는 선수단·대회관계자는 총 2950명이다. 선수촌에는 메디

컬 클리닉 두 곳이 조성돼 의료·지원 인력 116명이 선수 의료 대응을 맡는다. 개최 시군 보건소는 응급의료 신속대응반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강릉 아산병원은 응급의료지원팀을 운영한다.

한파 관리 역시 강화한다. 조직위는 슬라이딩과 설상 종목이 열리는 경기장 5곳(평창 슬라이딩·스키점프·바이애슬론센터, 정선군 하이원 스키 리조트·횡성 웰리힐리파크 스키리조트)에 관람객 대상 난방쉼터 15개소를 조성했다. 강원도는 담요와 핫팩 등 방한용품 1만 1250개를 지원한다.

김 지사는 "이미, 대회가 시작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대회 성공개최의 전제 조건은 안전, 위생, 한파 세 가지다. 일일보고를 원칙으로 폐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김덕형 duckbro@kado.net

江原日報

2024년 01월 17일 (수)

사회 05면

올림픽 개막 코앞 '식중독 막아라' 비상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을 사흘 앞두고 대회 개최 시설인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내 식당에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에도 개막을 앞두고 평창의 수련원에 머물던 올림픽 민간 보안요원들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86명이 식중독에 감염되기도 해 유사한 사태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강원특별자치도와 평창군

평창서 봉사자 6명 의심증상
즉각 격리조치 역학조사 착수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자원봉사자 6명이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은 지난 14일 알펜시아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식중독 증상으로 검사를 받은 인원은 3명이었으나 이날 오전 식중독 신고 접수를 받은 방역 당국

이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검사를 받도록 안내한 결과 3명이 추가로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자치도와 평창군, 질병관리청은 즉각 환자를 격리 조치하고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에 나섰다. 16일 오후 현재 조리종사자 30명을 포함, 총 36명의 검체가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에 배송,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이달 초 선수촌 식당과 IOC 숙박시설 내 조리종사자 705명

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한 결과 9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며 방역 당국이 긴급히 해당 조리장을 방역·소독하고, 검출자를 격리하기도 했다.

김진태 지사는 "감염병 대응상황실의 조기 신속한 대처가 가장 중요한 때"라며 "검체 채취, 역학조사, 방역소독, 격리 등 일련의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신속한 보고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강원2024취재단=박서화·최기영기자

江原日報

2024년 01월 17일 (수)

종합 01면

원터 테마파크 변신한 경기장서 'K-컬처' 즐긴다



강원 2024 'G-2'

강릉·평창·정선·횡성 주요 배뉴

야외 아이스링크·놀이기구 비롯

체험관 등 놀거리·먹거리 풍성

IOC "2018 유산 바탕 잘 준비"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기간 강릉, 평창, 정선, 횡성의 주요 배뉴가 '원터 테마파크'로 변신한다. 올림픽 경기장 주변에는 야외 아이스링크와 튜빙 썰매장, VR체험 등 테마파크 수준의 어트랙션(공연·놀이기구)은 물론 삼성과 알리바바 등 올림픽 파트너 기업들의 전시관, 다양한 먹거리 등이 올림픽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관련기사 2·11·12·22면

16일 오후 본보 기자가 찾은 강릉 올림픽파크. 강원2024 개회식과 피겨스케이팅, 쇼트트랙, 컬링 등 인기 종목이 열리는 핵심 배뉴다. 하키센터 정면에 설치된 야외 아이스링크에서는 관계자들이 스케이팅을 해보며 마지막 점검을 벌이고 있었다.

올림픽 파트너사인 삼성의 갤럭시 올림픽 체험관은 막바지 공사 중이었다. 스노볼 형태의 삼성 갤럭시관 옆에는 8m 높이의 동조 조형물이 설

치돼 올림픽파크의 랜드마크 역할을 했다.

알리바바 홍보관은 설치를 마치고 환하게 불을 밝혔다.

이미 입국한 선수들은 올림픽파크를 산책했으며 자원봉사자들은 속속 배뉴에 도착해 본인의 근무 위치와 역할을 사전 점검했다.

강릉 올림픽파크에는 이외에도 썰매체험, 포토부스, 크로마키 포토존, 하늘그네, 푸드존, 겨울음식체험, 미니 하키·컬링·바이애슬론 등의 놀거리가 준비돼 있다.

강원2024취재단=최기영·류호준기자

2면에 계속

江原日報

2024년 01월 17일 (수)

스포츠 02면

“범죄 테러 위협 완벽 차단” 강원경찰 특공대 투입

지난해 창설 이후 지역 국제행사 처음 맡아... 대원 150명 배치
경기장·선수촌서 24시간 대테러 근무... 소방·공항경찰 공조

강원경찰 특공대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경기장, 선수촌에서 대테러 임무 수행에 나섰다. 지난해 9월 창설된 이후 강원지역에서 개최된 국제행사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선수촌 입촌이 시작된 지난 13일부터 강원경찰 특공대 1개팀이 강릉에서 대테러 및 안전 활동을 시작했다. 특공대원들은 무술 고단자, 군 특수부대 출신들이며, 소총과 기관단총으로 중무장했다. 장갑차와 폭발물을 찾아내는 훈련을 받은 탐지견 2마리(달·토리)도 동원됐다. 드론 테러를 막기 위한 탐지기도 배치됐다.

경찰청은 이번 올림픽 기간에 강원경찰을 비롯해 전국 14개 시·도경찰청 특공대 소속 대원 150명을 배치한다. 강릉·평창·정선·횡성 4개 개최지의 경기장 9곳에서 대회가 열릴 때마다 순찰을 돈다. 야간에는 선수촌으로 옮겨 24시간 경계 근무를 선다. 열악한 훈련 여건 속에서도 강원경찰 특공대는 지난해 11월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신속하게 하강해 진압 작전을 벌이는 '팩스트로프' 훈련 등을 마쳤다.

이병훈 강원경찰 특공대장은 “지역사회의 성원에 힘입어 특공대가 창설된 만큼 한 치의 착오 없이 대테러 작전을 수행해 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소방 당국도 나섰다.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다음 달 2일까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소방안전대책”을 실시한다. 장비 49대와 인력 182명을 투입, 소방안전대책 기간 강릉과 평창에 각각 빙상119안전센터와 설상119안전센터를 운영한다.

올림픽이 시작되는 오는 19일부터는 강릉 총괄지휘본부와 평창 방면지휘본부에서 상황관리팀을 운영, 소방활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경찰단도 15일 진중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공동조직위원장과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우현 공항경찰단장은 “총기보관함을 운영하는 등 총기 안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2024취재단=신하림·류호준·김준겸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17일 (수)

스포츠 04면

도청 신청사 건립 계획 완료... 2026년 착공 추진

4000억원 규모·2028년 완공 목표

강원특별자치도가 신청사 건립 사업기
본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강원도는 2
월에 정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통과
와 함께 토지보상 등 신청사 건립 작업
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강원도는 16일 신관 2층 소회의실에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
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해당 용역은 신
청사 건립 규모를 11만㎡ 이상으로 제
안했다. 총사업비는 4000여억원이들
것으로 추산했으며 △법령 범위 내 사
무공간 최대 확보 △방문객 및 직원 편의
도모 △주민이용 시설 확보에 중점
을 두도록 했다. 최종 사업비는 지방재
정 투자심사에서 최종 산정된다.

강원도는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에
신청사 건립 사업의 지방재정 투자심
사를 의뢰했다. 도는 다음달 심사 결과
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재정법
에 따르면 40억원 이상 지방청사 건립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
사를 받도록 규정한다. 재정투자심사
이후 주요 절차는 실시설계, 보상 협의
등이다. 실시설계는 올해 상반기 본격
진행된다. 보상 협의는 다음달 말 보상
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6월부터 시작된
다. 보상비는 700억원으로 추산됐다.
도는 올해부터 보상비와 용역비 등 신
청사 건립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현
재 신청사 건립 기금은 315억원이 적립
돼있다. 착공은 2026년 3월, 완공은
2028년이 목표다. 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17일 (수)

스포츠 04면

민족사관고 내년부터 강원도 학생 20% 의무 선발

자사고 등 사회적 책무 강화 취지

정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고자 학교가 소재한 지역
출신 인재의 의무 선발 비율을 20% 이
상으로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 자리잡은 민족사
관고는 내년부터 신입생의 20%를 강원
도 학생으로 충원하게 됐다. 16일 교육

부는 이날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같은 날 국
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발표했
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가 2025학년도
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려던 자율형사립
고와 외국어고·국제고는 지위를 유지
하게 됐다.

다만 교육부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
하기 위해 '후기학생선발' 방식과, 교과
지식 평가를 금지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
을 밝혔다. 자사고와 외고의 신입생 모
집을 일반고 시기와 겹치게 해 학생 쏠
림과 입시과열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전국단위 자사고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해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
의 학생을 20% 이상 선발하도록 제도

를 고친다. 이에 따라 강원도 횡성에 위
치한 민족사관고도 신입생의 20%를 강
원도 학생으로 충원해야 한다. 그간 민
사고 신입생 중 강원지역 학생이 차지
하는 비율은 매년 5~7% 정도로 알려져
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사
고의 추후 대책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민사고 측은 강원특별자치도 교
육청에 대안학교 지정 절차 문의 및 전
환 의사를 전달했다. 설립자의 교육철
학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었
다. 하지만 강원도내 교육계 내부에서
는 자사고 유지 시 지역인재를 의무선
발 해야 하는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한 꼼
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민사고
측은 본지에 "민사고 신입생의 5~7%정
도가 강원도 학생이다. (의무선발이)
확정된 정책은 아니지만 20%를 뽑게되
면 학교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며 사
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민엽

2024년 01월 17일 (수)

사회 04면

江原日報

새 학기부터 학폭 전담조사관 생긴다

새 학기부터 강원교육현장에 학교 폭력제로센터가 설치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투입돼 '학폭' 사안을 조사하게 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신경호)은 16일 '회복적 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폭력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학교 폭력 해결을 법적 처벌보다는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지도록 해 진정한 피해회복과 관계회복, 건전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교육을 뜻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폭

도교육청 학교폭력 경감대책 발표... 폭력제로센터 신설

도내 회복적 학교 57곳 지정 생활교육 확산 도모 등 나서

실태조사에서 도내 1,877명의 학생이 학폭 피해를 입어 2.1%의 학폭 피해율을 기록했다. 도교육청은 학폭 피해율을 1%대로 낮추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먼저 올해부터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제로센터'를 설치하고 학폭 업무 처리 및 조사 역할을 갖춘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 공모를 통해

선발한다. 교육현장에서 학폭이 발생하면 제로센터가 사안을 접수해 지원사항을 분석하고, 전담조사관을 학교로 파견해 학생 면담 및 조사, 관계회복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다.

또 도교육청은 도내 57개 학교를 '회복적 학교'로 지정해 회복적 생활교육 문화 확산을 도모한다. 이어 도교육청-교육지원청-연수기관이 협

업해 학교별로 회복적 생활교육 지원단 구성, 관리자 역량강화 연수, 회복적 학교 네트워크 공유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

특히 경미한 학폭의 경우 당사자 간 대화와 동의를 통해 갈등조정 및 관계회복을 돕는 '학교장자체해결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수인 인성문화교육과장은 "학교폭력 발생 시 사법적 대응이 아닌 관계회복, 대화, 당사자 중심의 갈등 해결방법 지도 등 교육적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희기자 yulnyo@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17일 (수)

지역 10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원주시는 16일 시청 투자상담실에서 신경호 도교육감, 원강수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도교육청-원주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협력

인재양성·정주여건 개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원주시는 16일 시청 투자상담실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기획서 마련, 교육발전 전략 수립, 시범지역 내 지역 인재 양성 혁신 시스템 구축, 공교육 분야 연계 지원 확대, 지역 균형발전 및 정주여건 개선 등에 협력한다.

시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이점을 살려 지역대학, 공공기관, 기업 등 18곳과 '원주형 교육발전특구 거버

넌스'를 구축한다.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을 종합 지원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의 협력관계도 공고히 한다.

원강수 시장은 "시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협력,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원주는 교육발전특구의 조건을 갖 갖춘 복합 기능도시로, 특구 지정을 통한 행복한 교육도시 성장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혜민

2024년 01월 17일 (수)

지역 10면

江原日報

“국제스케이트장 춘천이 적지” 홍보 고삐잡는다

유치전 원주 합류 검토... 도내 4개 시·군 과열 조정
오늘 육동한 시장 토크콘서트...역량 결집·붙임 총력

【춘천】춘천시가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관한 불만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원주시가 경쟁 합류를 검토하면서 지자체 각축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춘천과 철원이 일찌감치 도전 의사를 밝혔고 올림픽 빙상 경기장 활용안을 꺼낸 강릉시에 원주시가 더해질 경우 강원 자치도 내에서만 4개 시·군이 경쟁한다. 또 경기도 양주시, 동두천시도 유치 준비에 나선 상태다. 경기장 조성 비용 2,000억원이 전액 국비로 지원

되는 만큼 지자체의 관심이 뜨겁다.

원주시는 관부면 일원 군부대 이전 부지를 사업 후보지로 정해 각 기능별 검토를 마쳤고 도에 의사를 전달한 상태다. 이 일대는 중앙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통한 수도권 접근성을 강점으로 부각할 수 있는 지역이다.

‘빙상 원류’를 앞세워 장기 유치 준비에 힘써 온 춘천시는 경쟁 심화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는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되는 5월까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는 16일 춘천 의암빙상장에서 스케이트 동아리를 결성하고 국제스케이트장 춘천 유치 염원 릴레이 응원에 동참했다.

지 시민 열기를 끌어올리며 경쟁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내 후보지 역시 경춘선, 서울~양양고속도로, GTX-B 연장 가능성 등 교통 환경에서는 타 지자체에

뒤처지지 않는다.

국제스케이트장 춘천 유치를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은 16일 오후 5,189명의 지지를 얻었고 지역 체육단체와 읍·면·동 자생 단체의 유치 결의

문 발표 및 릴레이 응원전도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또 육동한 시장은 17일 오후 2시 춘천예술마당 봄내극장에서 1문 1답 토크콘서트를 열어 스케이트장 유치를 주제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갖는다. 인접 시·군 겨울축제장에서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유치 홍보전을 진행 중이다. 일제강점기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빙상대회 개최 역사도 경쟁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무기다. 춘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3월부터 유치 추진단을 구성해 장기간 준비에 매진했고 마무리 성과 도출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호기자 jyh89@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17일 (수)

지역 10면

원주시 올해 ‘6개사 1000억원’ 투자 유치 총력

전년비 기업 두배·액수 세배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집중
포럼 참가·협업 등 전략 수립

원주시가 올해 투자 유치 목표를 전년 대비 기업은 두배, 액수는 세배 늘려 전방위 유치 활동에 나선다.

시는 기업 6곳, 1000억원 투자 유치를 올해 목표로 정했다. 이는 지난

해 목표(3곳·300억원) 보다 상향된 것으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으로 올해를 지역경제 대도약의 해로 삼는다는 각오다.

시는 지역 전략산업 중심의 중·대규모 우량기업 유치에 중점을 뒀다. 반도체, 2차전지, 도심항공교통(UAM), K-방산, 바이오, 수소에너지 등 정부 정책 관련 차세대 첨단산업 분야 기업 유치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유망기업

리스트화, 데이터 분석을 실시, 대상 기업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각종 투자유치 설명회, 박람회, 전시회, 포럼에 적극 참가한다. 주요 산업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기초한 인맥과 정보교류망을 활용,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밀착형(대면) 활동을 전개한다.

기업 유치 성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해양원특자치도,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테크노파크 등과 사안별로

협업하는 투자유치 협력시스템도 상시 가동한다.

기업 맞춤형 입지를 적시 제공할 수 있도록 실시간 기업정보 교류를 통해 유·휴부지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부른일반산업단지 조성예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원강수 시장은 “지역경제 대도약을 이루는 뜻깊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혜민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17일 (수)

지역 12면

동해 북평산단, 저탄소 그린산단 재탄생 속도

3월 착공 2025년 완료 계획

인도·집수정 친환경 부재 교체
자연정화 강화 비점오염 저감

동해 북평산업단지가 저탄소 기반의 그린산단으로 변모를 예고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동해시는 국비 40억원과 도·시비 40억원 등 80억원이 투입되는 북평산업단지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1월중 원주지방환경청의 설계도서 승인에 이어 2월 계약 심사와 관계부서 협의를 마무리한 후

3월중 공사에 착수, 2025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전국 4곳과 함께 환경부 공모에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북평산업단지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은 비점오염관리에 취약한 노후 산업단지를 비점오염을 저감하고, 물순환을 개선하는 것을 비롯, 식생 조성 등을 통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인근의 합류식 하수관거로 인해 수질 민원이 발생하는 북평산단에는 저영향개발(LID) 기법과 빗물이용을 연계한 공원·생태도로 등이 조성돼 수질·물순환 개선과 함

께 산단 근로자와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이 제공될 예정이다.

북평산단의 대로변과 일반산업단지의 노후된 인도·집수정 등을 투수블럭(우수한 투수성과 내구성, 자연석 표면 층을 갖고 있어 미려하고 친환경적 경관조성이 가능)을 사용한 투수포장을 함으로써 오염원들이 빗물과 함께 땅속으로 흡수돼 자연정화 과정을 거쳐 수질과 물순환 등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상습침수 구역에는 원형침투수로관(하부부재가 투수콘크리트로 제작돼 환경친화적이고, 빗물의 집수 효율을 극대화한 제품)과 침투통

(빗물을 땅속으로 침투시키는 시설)을 설치해 물순환이 자연상태로 회복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도로변에 식재를 통해 탄소흡수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북평산단은 2006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기 이전에 조성된 노후산단으로 그간 비점오염관리에 취약한 면이 있었다"며 "인도·집수정 등 노후된 시설을 친환경 부재로 보수하면서 식재를 통해 온실가스도 줄이는 등 경관개선과 함께 저탄소·그린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인수 jintru@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17일 (수)

지역 09면

평생학습 검색·신청·결제까지 '배워봄'에서

춘천시 통합플랫폼 내달 첫선

200개 기관 산발 운영 한곳에

시민 접근성·편의성 증대 기대

춘천시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배워봄'이 내달 첫 선을 보인다.

16일 본지 취재 결과 '배워봄'(사진·로그)은 지역 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검색부터 수강 신청, 온라인 결제, 수료증 발급까지 한번에 이용 가능한 평생학습 종합 정보 통합플랫폼이다. 지역내 200개 기관이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을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민들은 대상별, 분야별, 지역별, 교육유형별 등 다양한 검색 기능으로 쉽고 편리하게 본인이 원하는 강좌를 검색하고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역의 평생교육기관들은 통합플랫폼의 강좌·강사·수강생 관리 기능을 통해 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구축은 육동한 시장이 취임 초기부터 진행한 사업이다.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평

생교육 프로그램을 하나로 모으고 시민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평생교육에 접근, 유치·초·중등·고등·평생교육으로 이어지는 교육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육동한 시장의 목표다. 민선 8기 춘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최고

의 교육도시 조성 과도 맞닿아 있다. 춘천시는 16일 오전 시청에서 평생교육기관장, 교육도시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플랫폼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험 운영을 한

후 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 기존 각 기관에서 접수하던 방식은 이제 '배워봄'으로 통합되며 '배워봄'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배워봄'과 링크로 연결, 해당 기관에서 자체 접수·수강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춘천시는 시청소식지, 맘카페 등을 통해 통합플랫폼을 홍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교육이 지속 가능해야 지역이 지속 가능할 수 있다"며 "배워봄이 시민들의 생활 속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세현 tpgus@kado.net

춘천시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배워봄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17일 (수)

사설/칼럼 19면

글로벌본부 2년차 기대 크다

-동해안 산업구조 다변화성장동력 마련해야

강릉시 주문진에 동지를 둔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가 개청 2년 차를 맞았습니다. 본부는 2청사 운영과 함께 강원 도내 지역 균형 발전을 모색해 왔습니다. 주민들이 체감할 성과를 내기에는 시간이 짧았지만, 이제는 치밀한 발전 전략을 마련해 정책으로 옮겨야 합니다. 지난 6개월이 조직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시기였다면, 올해부터는 주민들이 공감할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관광 중심의 동해안 산업 구조를 다변화해, 성장 동력을 만들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2청사는 관광과 미래 산업, 수산업 중심의 행정 조직으로 출발했습니다. '1본부장·3국·1기획관·4사업소' 체제로, 주요 역할은 영동권 정책 기획 및 조정입니다. 탄소와 수소 등 전략 산업 육성, 디지털 산업과 폐광 지역 대체 산업 육성, 관광 정책 산업, 해양수산 행정을 담당합니다. 특히 동해안 해양수산 분야만 맡았던 환동해본부의 기능을, 동해안 지역과 연계된 관광, 산업 분야로 확대했습니다. 민원인들이 본청이 소재한 춘천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덜 점은 지역의 호응이 있습니다.

그러나 2청사는 민원 편의 차원을

넘어, 지역이 도약할 여건을 마련하는 일에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최근 발표한 글로벌본부의 올해 정책 구상은 큰 기대를 하게 합니다. 본부는 도 전체 예산 8조 6500여억원 중 6.8%에 해당하는 5852억 5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엔 청정 에너지 생태계 조성, 디지털 신산업 육성 및 폐광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에 시동을 겁니다. 동해·삼척 일원에 조성 중인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시설 용역도 발주합니다. 폐광 지역의 대체 산업을 위해 청정메탄올 클러스터와 핵심 광물 산업단지, 첨단 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프트웨어와 ICT 인재 양성을 통한 기업 유지와 일자리 창출 방안도 눈에 띕니다.

본부가 청정 에너지 생태계 조성, 디지털 산업 등 특화 산업에 초점을 맞춘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산업을 일으킨다는 계획은, 동해안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 방향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기대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기간에 실적을 내지 못하더라도, 수시로 지역 사회와 소통해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지자체와 주민의 성원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17일 (수)

사설/칼럼 19면

무료티켓 '노쇼' 선의 피해 없어야

-올림픽 응원 열기야말로 성공 열쇠,예매율 안심 일러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막식을 이틀 앞둔 가운데 무료 관람으로 진행되는 경기 관람 티켓이 남아있습니다. 그동안 32만장의 무료 관람권이 나갔다는 희소식에도 불구하고, 막상 경기 현장에는 관람객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 현상을 우려하며 관련 기관에서 대책에 전전긍긍입니다. 개막식 직후 주말인 20, 21일 경기는 대부분 관람 티켓이 다 나갔지만, 22일 월요일부터 주중에 열리는 다수 경기 티켓은 아직 예매하고 있어 시민과 청소년 자발적인 관람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월 1일 폐막일을 제외하고 중후반으로 갈수록 티켓 예매 상황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주말에 비해 주중에 열리는 다수 경기 티켓은 매진 소식이 뜰 떨어집니다. 피겨스케이팅,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스노보드 등과 같은 종목은 일찌감치 티켓이 동이 났으나 바이애슬론과 알파인스키 등 몇몇 종목의 경우 매 경기 티켓이 남아 있습니다. 19일 개막식의 경우 유료 입장권 및 무료 초대권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웃돈으로 등장해 단속에 나설 정도로 인기를 끌고, 다음날 경기는 한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매진되거나 매진 임박 상태인 것에 비하면 대조적입니다.

청소년올림픽이 제대로 흥행하려

면 32만장 예약 현황 그대로 경기장에 입장하는 결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매 실적의 일부라도 동원 방식의 무리한 예약이 따랐다면 노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더욱이 폭설, 혹한과 같은 겨울철 이상 기후로 인해 예약해 놓고도 쉽게 경기장 방문을 주저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올 의지도 없으면서 무료여서 쉽게 예매하고 취소조차 하지 않는다면 선의의 타인에 피해를 주고, 대회 운영에 허점과 차질을 빚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 관람을 유도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진정한 즐거움은 스포츠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경기 관람 발길이 이어져야 합니다. 대회 티켓 예매 인터넷 사이트에 관람객의 노쇼 현상이 없도록 캠페인을 병행하고 안내해야 합니다. 생생한 대회 현장과 경기 관람 체험 후기가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알리는데 치밀해야 합니다.

대회 참가를 위해 79개 각국에서 찾아온 청소년 선수들을 응원하는 열기가 말로 성공 대회를 가늠하는 열쇠입니다. 무료 티켓이기에 예매율에 안심해선 안 됩니다. 직접 관람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江原日報

2024년 01월 17일 (수)

사설/칼럼 19면

얼어붙은 사랑의 온도탑, 온기 되살려야 할 때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나눔을 전하는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가 오르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원특별자치도회에 따르면 15일 기준 도내 사랑의 온도는 82.1도로 집계됐다. 당초 목표로 했던 85억 3,000만원보다 15억원이 적은 70억313만591원이 모금됐다. 같은 날 전국 사랑의 온도탑 기준 온도는 101.2도로 목표치인 4,349억원을 조기 달성해 대조를 이뤘다. 강원지역 모금 실적은 전북(71.5), 울산(73.8), 인천(79.9), 경남(81.2)에 이어 다섯 번째로 부진했다. 이대로라면 오는 31일까지 100도 달성도 우려된다. 연탄 기부도 예년만 못하다. 원주연탄은행에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후원된 연탄은 1만2,400장으로 전년 동기간(2만1,200장)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모인 연탄 역시 23만장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832가구 전부가 난방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연탄 30만장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랑의 온도탑이 식은 원인으로는 경기 침체 탓이 가장 큰 것으로 꼽힌다. 하지만 기부 문화가 위축되는 것이 경기 상황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많다. 코로나19 등으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진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중요한 것은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의 의

식이다. 실제로 몇 해 전부터 기업과 개인 모두 선뜻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 기부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나눔 문화가 갈수록 사라진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사랑의 온도탑 성금은 우리 지역 소외계층의 긴급생계나 의료, 가정 환경 개선사업, 월동 난방 등에 전액 지원된다. 모금액이 감소하면 이들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된다. 경기 침체로 우리 모두 어렵지만 십시일반으로 소외 이웃을 위한 온정 나눔에 동참이 요구된다. 소외 이웃을 위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한파가 며칠째 계속되면서 쪽방촌 주민들과 홀로 사는 어르신,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훨씬 더 힘들어졌다. 경제 전반이 팍팍 얼어붙으면서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이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사회에 온정이 더 필요하다. 어려운 이웃에게 겨울은 혹독하다. 기부는 사회 발전의 활력소로서 자신의 행복감을 높이는 실천 행동이다. 우리가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이웃의 아픔을 함께 안고 가면 서로에게 힘이 되기 때문이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부의 손길이 몰려 사랑의 온도 100도 달성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江原日報

2024년 01월 17일 (수)

사설/칼럼 19면

극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안보에 흔들림 없어야

2018년 강원도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급격하게 조성된 남북 평화무드가 갈수록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에서 영토 조항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주권 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민들이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대한

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공화국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하게 다져 나가야 한다. 김 위원장이 이렇게 말한 이상 불법 무도한 공격이 있을 경우 우리 국민이 받은 피해의 몇 배 이상을 적에게 되돌려 주겠다는 임전무퇴(臨戰無退)의 치열한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굳건한

국가 안보는 말로만 외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고 있는 지금 평화의 시기에 전쟁의 위험에 대비하지 못했던 국가와 국민은 결국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고 말았다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특히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보위(保衛)하는 헌법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본인은 물론이고 군과 정부 관계자가 24시간 정위치(正位置)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정부는

또 북한의 국지적 도발에 대비해 서해 5도를 비롯한 휴전선 상황을 전면 재점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안보를 다지는 데 있어 대통령·정부·군·정

치권·국민 사이의 의사소통은 대단히 중요하다. 상호 불신은 내부를 허무는 독(毒)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군은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한 정보를 정치권과 국민에게 가감 없이 신속하게 알려 상호 신뢰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 역시 엄중한 안보 현실 앞에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우리 내부를 교란시키려는 분열적 책동을 경계하고 그에 말려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결연해야 할 때 결연하게 행동할 줄 아는 국가와 국민만이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한다면 한반도발(發) 위기는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

北 김정은 위원장, 대한민국 적으로 규정

영토 조항 반영 헌법 개정 필요성 강조

정부, 도발 대비 휴전선 상황 정밀 점검을